

남윤호의 아메리칸 오디세이 트럼프의 문화전쟁

성조기 태우면 징역형... ‘아메리카 퍼스트’ 의식화 나섰다

남 윤 호
미주중앙일보 대표



상징을 지배하는 자가 의식을 지배한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상징을 움켜쥐고 조작·통제하려 했던 이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국기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력한 상징물이다.

성조기는 최강대국 미국의 최상위급 상징이지만 그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는다. 성조기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 불태워지고, 흔히 짓밟히는 국기일 것이다. 적대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그렇다. 시위대는 특히 성조기를 불태우고 그걸 무슨 정의구현이라도 되는 양 여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성조기 소각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국가에 대한 경멸과 적대, 그리고 폭력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며 금지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에선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짓밟아도 처벌받지 않았다. 1989년 대법원이 성조기 소각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은 1984년 텍사스의 공화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벌어졌다. 좌파 운동원 그레고리 존슨이 레 이칸 행정부에 반발하며 성조기를 불태우다 체포됐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 국기 모독죄로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성조기 소각도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본 것이다. 당시 대법관들의 표결은 5대 4로 팽팽히 갈랐다.

반발한 공화당이 밥 뿔 상원의원 주도로 곧 연방 국기보호법을 제정했으나, 1990년 이 역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 5대 4로 엇갈렸다. 그 뒤 성조기 소각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 반열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성조기 소각은 표현의 자유’ 인정

대통령이라 해도 성조기 소각 자체를 직접 금지할 수는 없다. 대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판례를 우회하는 조항을 담았다. 폭력, 중오범죄, 재산 파괴, 공공질서 위반 등과 결합할 경우 법무부가 최우선적으로 기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외국인이 성조기를 불태우면 비자 취소나 추방도 가능하게 했다. 트럼프는 서명하면서 “징역 1년, 조기 출감은 없다”고 말했지만, 형량을 명문화한 건 아니다.

처벌 대상의 맥락과 조건을 달긴 했으나 이를 판단하는 공권력의 재량이 매우 크다. 집안 청소하면서 낡은 국기를 태워 없애는 걸 빼곤 다 걸릴 판이다. 사실상 성조기 소각 행위 전반을 규제하려는 의도다. 자칫 공권력이 과잉 개입할 위험이 크다.

미국 공권력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때론 정파성에 맞춰 춤을 춘다. 2020년 플로이드 피살 사건 직후 워싱턴 DC에서 폭력시위가 일어났을 때였다. 시위대가 ‘흑인 목숨이 소중하다(BLM)’는 구호를 어디에 휘갈겨도 안 건드렸다. 반면 비슷한 시기 분필로 ‘흑인 영아 목숨이 소중하다’고 길바닥에 쓴 두 여학생은 즉시 체포됐다. 공공기물 훼손 혐의였다. BLM의 살기에 놀려 눈 감던 경찰에겐 어린 여학생이 만만해 보였으리라. 또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은 반난대 단체를 거칠게 공격했던 인물이었다. 시장 휘하의 경찰도 그에 영향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던 공권력이 이젠 방향을 바꿔 성조기 소각 단속에 나섰다. 세상은 돌고 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대법원의 판단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바뀌곤 한다. 과거 위헌이 합헌으로, 반대로 합헌이었던 게 위헌으로 뒤집히기도 했다. 동성애 처벌은 합헌에서 위헌으로, 반대로 최저임금제는 위헌에서 합헌



지난 2020년 5월 플로이드 피살 사건 직후 LA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에서 참가자가 성조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김상진 기자〉

으로 바뀌었다. 트럼프가 보수 우위(6대 3)의 현 대법원에 그런 변화를 노릴 만하다는 게 법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성조기 소각을 둘러싸고 조만간 시험에 들게 됐다.

대중의 반응은 늘 그렇듯, 찬반으로 엇갈린다. 트럼프가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백악관 앞에서 퇴역군인 제이 캐리는 보란 듯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는 “불법적이고 파소적인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국기를 태운다”고 확성기로 외치곤 경찰에 연행됐다. 체포 사유는 성조기 소각이 아니라 화재 안전규정 위반이다. 캐리처럼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이상론자들은 한둘이 아니다.

국기 소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많다. 미국에서 성 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태우거나 짓밟으면 혐오범죄로 몰리기 십상이다.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공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좌파 진영은 무지개 깃발을 신성불가침으로 모신다. 성조기 불태우는 걸 표현의 자유라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캘리포니아 페퍼다인 대학이 매년 9·11 테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약 3000 개의 성조기. 희생자 한 명에 한 개 꼴이다. 외국인 희생자를 위해 각국 국기도 함께 게양한다.

〈김상진 기자〉

트럼프 “국가에 대한 경멸·적대 금지” 성조기 소각 규제한 행정명령 서명

박물관 전시물, 식당 로고까지 간접 좌파 캔슬관행 대항, 우파 캔슬 공세

1기 때와 달라진 트럼프 정책 이면엔 ‘강철 같은 애국심 고양’ 의도 깔려

말이다. 성소수자가 미국이라는 국가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상위 공동체인가. 법리를 떠나 보수층은 이 현실에 불편해한다.

성조기 소각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지난 6월 LA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소요사태가 벌어졌을 때다. 시위대는 또 성조기를 불태웠다. 대신 멕시코·엘살바도르 등 불체자 출신국가의 대형 국기들을 휘날렸다. 미국에서 꼭 살고 싶다면 성

조기를 불태우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기 나라 국기를 펴려였다.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광경은 보수층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들의 불만을 달래주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트럼프의 상징 관리는 국기에 그치지 않는다. 상징을 둘러싼 더 넓은 전선인 아트의 영역으로 뛰어 들었다. 그 불꽃이 제대로 된 곳이 국립 박물관·연구·교육 기관인 스미스소니언 협회다. 지난 8월 트럼프는 스미스소니언이 좌파 ‘워크(woke)’ 이념에 물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트



2023년 ‘성소수자의 달’을 기념, 백악관 발코니에 성소수자·유색인종을 상징하는 ‘프로그레스 프라이드 깃발’이 걸려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렸다고 비난했다. 선동적 전시물, 자학적 역사관, 편향적 가치관을 주로 지적했다.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통제를 벗어났다”는 표현도 했다.

이를 인용해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엔 시정돼야 할 사례들이 적시돼 있다. 성전환자로 묘사된 자유의 여신상, 국경 장벽을 넘으려는 밀입국자 그림, 성조기와 함께 박물관 입구에 내걸린 성소수자 깃발,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권을 옹호하는

전시회... 모두 ‘위키시(wokish)’한 것들이다. 우리말로 좌파 성향 ‘깨시민 의식’의 퇴적물이라고나 할까.

백악관은 지난달 로니 번치 스미스소니언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산하 박물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했다. 조사 대상 8개 박물관의 전시가 정부 기준에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전시를 바꾸라는 지시나 다름없다.

이어 트럼프는 워싱턴 DC의 신규 연방 청사는 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으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타지역 연방 건물도 기본적으로 고전 양식을 채택하라고 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공공건축의 주류 양식은 모더니즘이었다. 트럼프는 이게 못마땅하다며 ‘위대한 아메리카’에 어울리는 고전과 전통을 우선시한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의 ‘문화전쟁’으로 본다.

‘미국이 침략받는다면 피난’ 40% 욕박

심지어 민간 레스토랑의 로고에도 간섭한다. 가족 손님이 많은 크래커배럴 체인이 최근 로고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로고엔 식당 이름 왼쪽에 나무통과 흔들의자에 앉은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그려져 있었다. 시골 가게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디자인이었다. 새 로고엔 남성 부분이 삭제됐다. 이게 공개되자 백인남성을 혐오하는 좌파적 다양성(DEI) 이념 탓이라는 보수층의 반발이 나왔다. 트럼프가 가세해 8월 26일 “기존 로고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트루스소셜에 썼다. 크래커배럴은 며칠을 못 버티고 로고 변경을 취소했다. 논란 직후 두 자릿수로 떨어졌던 이 회사 주가는 새 로고 취소 뒤 다소 회복됐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느냐, 하고 우습게 볼 법하다.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때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번덕스럽고 단발적인 해프닝으로 남기기 어렵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이번엔 오랫동안 좌파가 점령해온 문화적 거점들을 소탕이라도 하듯 공격하는 양상이다. 좌파의 진지 전에 대한 트럼프의 점령 작전이다. 좌파의 캔슬 관행에 맞선 우파의 캔슬 공세다.

취임 초 강력하게 밀어붙인 하버드대 길들이기는 소송전 국면으로 옮겨갔다. 바이든 정부 시절 윤택한 예산을 쓰던 정부 내 DEI 조직은 대대적으로 쳐냈다. 그다음에 상징 공경이다.

국기라는 상징의 통제, 대중의 애국심의 농도와도 맞물린 사안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퀴리피악 대학이 미국인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면 남아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피난 갈 것인가, 물었다. 남아서 싸우겠다는 이가 55%, 피난 가겠다는 이는 38%로 나왔다. 미국인의 강철 같은 애국심을 확인했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공화당 지지층에선 25%, 민주당 지지층에선 무려 52%가 피난길을 택했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35%, 흑인의 59%가 피난하겠다고 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고르게 분포돼 있진 않다는 걸 보여준다.

이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숫자다. 건국 250주년에 맞춰 아메리카 퍼스트의 완성을 노리는 트럼프에게, 문화전쟁은 그래서 더 이겨야 할 싸움이 됐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가 현지에서 전합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